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서 형 순(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황 은 경(원광대 박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 중에 겪는 문화적 차이와 심리정서적 위기를 극복하고 적응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한국의 다양한 다문화관련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한국 다문화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 생애주기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되는 다문화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 후 평가를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의 만족과 요구사항을 살피고, 다문화교육의 개선점을 모색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1주 4-5회씩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7개월 동안 관찰과 인터뷰를 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관찰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결혼이민자 정책과 내용을 참고하여 생애주기별로 기본영역을 입국초기(가족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역량강화기로 구분하였고 통역요원을 통하여 충분히 표현하도록 유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 첫 단계인 결혼 및 입국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상업적 광고와 매매혼적인 중개행위로 결혼과정에서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결혼초기에 한국어소통의 어려움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 및 경제적 빈곤과 사회·문화적 소외로 고통 받고 있다. 둘째, 생애주기 2단계인 자녀양육과 자녀취학기에 들어간 결혼이민자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방문교육지도사의 아동양육지원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지원기간이 5개월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생애주기 3단계인 취업역량기에는 일정 거주기간이 경과하고, 한국어 실력이 되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 통·번역사, 다문화이해강사, 아동양육지도사, 방과후지도사, 학습지도사 등 준전문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자긍심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취업과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자체가 부족하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는 단기적인 허드렛일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숙련기술이 없는 여성들은 취업에 앞서 직업교육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교육(한글교육 등)의 적극적인 홍보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기간에는 경제활동이나 육아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결혼이민자들과 자녀들의 이중 언어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입국 초기 한국어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선심성 행사를 지양하고 일반인들의 왜곡된 시각을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상담 및 국민들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이 가능하도록 모국어 상담자 양성 및 시스템 구축하기. 넷째, 지속적인 관찰과 욕구조사를 통한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용하기. 다섯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극대화를 위한 의식 교육 강화, 가족의 협조, 서비스에 우선되는 사전조사 실시. 여섯째, 결혼이민자와 기존 주민과의 공동체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기. 일곱째, 역량 있는 결혼이민자 발굴과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취·창업교육실시하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